



# 행복의 조건



오영석 <소설가>

- 1934년 : 황해도 사리원 출생
- 1958년 :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 1959년 : <현대문학>지에 단편 「3인상」과 「소녀」로 문단 데뷔
- 주요작품 : 장편 「장발마차」 「매일부는바람」 「두얼굴의 연인」 「밤이살아지는 강」 「물꽃축제」 등 중편 「신약장세기」 「마지막축제」 「꿈꾸는 눈동자」 「사냥꾼의 야회」, 단편 100여편 발표
- 경력 : 월간 「주부생활」 「신여성」 「여성세계」 「백조」 등 편집장 지냄

**강** 민구씨와 신 강희 여사는 똑같이 신춘문예의 등용문을 당당히 통과하여 문단에 나온 소설가였다. 두 사람 모두가 소설가라는 사실은 그들의 결혼을 가능하게 해주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강 민구씨는 신 강희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우린 결혼할 수가 있을 거요, 둘 다 소설가이니까!”  
그러자, 신 강희 여사 역시 태연하게 이렇게 응수했다.  
“우린 이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소설가이니까!”  
두 사람의 말은 다 옳았다.

두 사람은 곧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은 눈부실 만큼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신 강희 여사는 이혼할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얼마 후 두 사람은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 역시 눈부실 만큼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신 강희 여사는 참된 우정을 나눌 친구가 될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 태어난 사내아이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야릇한 것은, 이 아이를 강 민구씨의 소유로 하느냐, 아니면 신 강희 여사의 소유로 하느냐 하는 분쟁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로.

강 민구씨의 소설과 신 강희 여사의 소설이 같은 잡지에 한달 걸러 게재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한 희한하게도 일치하였다.

강 민구씨의 작품은 헤어진 여자에 대한 연문(戀文)인데 반해, 신 강희 여사의 작품은 헤어진 남자에 대한 연문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그** 소설을 한꺼번에 다 읽고 난 신 강희 여사는 목을 움츠린 채, 쏟아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았다. 그런가 하면, 공연히 신바람이 나는 듯, 방 안을 오락가락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다가 생각난 듯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신 강희 여사가 향한 곳은 강 민구씨의 하숙집이었다.

강 민구씨의 방 안에 들어선 신강희 여사는 그의 책상 위에도 그들의 작품이 발표된 잡지 두 권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바깥바람을 쏘이지 않겠어요? 우리 서로를 축하해요.”

두 사람은 옛날 연애 시절에 하던 대로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을 거닐었다. 한동안 묵묵히 걸던 신 강희 여사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저와 헤어지니까, 당신은 또 그 전에 묵고 있던 하숙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군요. 혼자 지내기가 외롭지 않아요? 어디 더 먼 곳으로 옮겨갈 수는 없나요?”

“글쎄. 모처럼 우리가 헤어지긴 했지만, 서로의 생활이 환히 들여다보여서, 원.”

강 민구씨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예요. 빨리 서로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할 텐데.”

신 강희 여사는 한숨을 가늘게 내쉬며 맞장구를 쳤다.

“그건 좀 어려울 거요. 우린 꽤 유명한 소설가 이니까.”

강 민구씨는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들은 너무나도 멀리까지 걸어

나갔으므로 귀로에는 택시를 타야 했다. 그들의 아이는 차 속에서 곧 잠이 들어 버렸다.

신 강희 여사는 먼저 내리게 되었다. 그녀는 강 민구씨의 가슴에 안겨 잠이 든 아이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깨우기도 무엇하니까, 오늘 밤은 당신에게 맡기고 가겠어요.”

“좋도록 해요.”

강 민구씨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엄마!”

**이**튿날 아침, 잠이 깬 아이는 신 강희 여사를 찾았다. 강 민구씨는 어떻게 아이를 달래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여섯 살난 아이를 다방에까지 데리고 가기도 했다.

강 민구씨는 비로소 아이를 찾아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부부사이에서는 방해물이었을 뿐 아니라 온통 아내에게만 맡겼던 아이를 이제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듯한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차츰 장난이 심해졌다. 강 민구씨는 그런 아이를 신기한 눈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우리 혼이는 착한 애지, 집이 둘씩이나 있고.”

그러자, 아이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여긴 아빠 집이야?”

“그럼 아빠 집이지. 아빠 집에서 며칠 자다가 가지 않을래?”

“그래, 자고 갈 테야.”

그렇게 며칠 동안 강 민구씨 하숙에서 지낸 아이는 다시 신 강희 여사에게로 돌아갔다.

어느날, 아이가 혼자서 강 민구씨의 집을 찾아왔다.

“이거 엄마가 아빠 주래.”

아이가 내미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당신에 대해서는 혼이에게 여러 가지 들었어요. 하지만 내게 대해선 혼이에게 묻지 말아 주어요.〉

이제 아이는 강 민구씨 앞에서도 쾌활하게 행동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교대로 왕복하는 일이 점점 재미있어지는 듯했다.

강 민구씨가 찾아온 친구와 술잔이라도 나누고 있을라치면, 어느새 아이는 어머니한테 가버리곤 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두 사람은 이런 말을 서로 나누게 되었다.

“정말 이상해요. 우리 가정을 잃었는데 훈이에게  
그게 있군요.”

“그렇지만도 않아. 훈이는 어느 사이엔가  
외톨박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어머! 그럼 거리의 부랑아가 될 조짐이  
아닌가요?”

“아니지. 우리 두 사람이 한 이혼의 이상을  
실현시켜 주는 거지.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가정은  
창공(蒼空)이라는 걸 말야.”

**어**느날, 강 민구씨가 늦게 직장에서 돌아오자,  
그의 방에서 아이가 자고 있었다. 살그머니  
아이 옆으로 누워도 세상 모른 채 자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떠 보면, 아이는 이미 곁에  
없었다.

어느날 훈이가 말했다.

“엄만 옆집 아저씨와 여행을 떠났다.”

밥을 먹으면서, 아이는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여행을 떠났다고?”

“응. 집을 잠그고 갔다.”

“그래? 훈이도 아빠랑 멀리 여행을 갈까?”

“그건 안 돼. 그렇게 되면, 엄마 집에 갈 수가  
없잖아.”

“하긴 그렇군.”

강 민구씨는 아이의 심각한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었다.

강 민구씨는 아내와 헤어질 때 하던 말이  
떠올랐다. 두 사람이 똑같은 소설가였기 때문에  
오갈수 있는 말이었다.

“당신 소설이 내 영향에서 깨끗이 벗어날 때가  
오면, 우리 다시 한 번 결합하도록 하지.”

그러나, 신 강희 여사는 고개를 내저었다.

“전,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건 싫어요. 당신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저는 당신의 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작품 세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두 사람의 감정이 달라짐에 따라, 그 거리가  
아이에게 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오가면서  
그 거리를 극복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 같았다.

그 때문에, 아이의 감정이 늙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런 움직임이



강 민구씨나 신 강희 여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그런데 강 민구씨는,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었다.

한편, 신 강희 여사는 강 민구씨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녀는 아이 속에 자기를 좀더 많이  
심어 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 신 강희 여사는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로 돌아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훈이는 역시 어버이를 잃은 외로운 자식이군요.”  
그러면, 강 민구씨는 한술 더 뜨는 것이었다.



“아이는 새로운 집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훌쩍 친어머니에게 가버렸다. 그러자 강 민구씨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을 만큼 아이가 귀엽게 느껴졌다.”

“물론 고아지. 하지만 인간의 고아는 더욱 아니야. 짐승의 고아가 아니면 하느님의 고아인거야.”  
 강 민구씨는 얼마 후, 재혼을 했다. 처음에 예정했던 그런 결혼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금 인생의 깊은 함정으로 발을 헛디디고 만 셈이었다.  
**그** 결혼은 결코,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새로 맞아들인 아내는 이혼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가 강 민구씨의 새로운 가정을 처음

‘찾아왔을 때, 아무 거리낌없이 그의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다.  
 “정말 알 수 없는 녀석이군”  
 강 민구씨는 그런 아이에 대해 이상한 증오심을 느꼈다. 오히려 좋아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새로운 집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훌쩍 친어머니에게 가버렸다. 그러자 강 민구씨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을 만큼 아이가 귀엽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새 아내는 아이가 훌쩍 떠나버리고 나면 마치 자신의 잘못된 양 몸뚱이를 바를 몰라했다.  
 “여보, 제가 혼이에게 뭐 잘못했나요?”  
 “잘못하긴, 뭐.”  
 “그런데, 왜 아무 말 없이 가버린 거죠?”  
 “그 앤 그런 아이야”  
 그렇게 대꾸하면서 강 민구씨는 새 아내가 아이보다 바보라고 느꼈다.  
 “여보, 혼이를 제가 키워 봤으면 해요.”  
 “그렇게 하지, 뭐”  
 “하지만, 그 여자가 소설가라는 것이 웬지 제게는 두려워요. 혼이를 아주 제 자식으로 만들어서 그 여자한테 못 가도록 하면 안 될까요?”  
 “당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릴 하요!”  
 “아니, 여보”  
 새 아내는 놀라면서 강 민구씨를 바라보았다.  
 “정말 당신은 바보로군!”  
 강 민구씨는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아내의 따귀를 세차게 후리쳤다.  
 “바보! 이 멧덩구리야!”  
 두 대, 세 대... 강 민구씨는 미친 사람처럼 연거푸 아내의 뺨을 때렸다.  
 “그 애는 말이야, 그 애는...”  
 강 민구씨는 숨가쁘게 혈떡이고 있었다.  
 “그 애는, 그 여자가 연인과 함께 누워 있는 침대에까지도, 겁없이 자유롭게 뛰어올라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결혼이나 해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의 자식은 더욱 아냐!”  
 강 민구씨는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기에 지쳐 버려, 후닥닥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문을 두 발로 걸어차는가 싶자, 어느새 길거리로 뛰쳐나가고 있었다.  
 햇빛이 찬란한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 민구씨는 이제야 처음으로 신 강희 여사와 아이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